"트래픽 효율 50% 향상"

SKT, '차세대 5G 코어' 내년 출격

클라우드-네이티브 기반 서비스 에릭슨과 손잡고 국내 최초 개발 내년 1분기 상용화 앞두고 잰걸음

SK텔레콤이 '클라우드-네이티브 기반 차세대 5G 코어'를 내년에 본격 상용화한다.

SK텔레콤은 2022년 1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클라우드-네이티브(Cloud-Native) 기반 차세대 5G 코어' 장비 구 축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클라우드-네이티브는 각종 서비스 나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제작이 클 라우드 환경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것으로, 하드웨어 장비와 비교해 빠른 업데이트를 통한 서비스 출시 시간 단 축 및 안정성 확보 등 장점을 가진다.

SKT는 이동통신 분야에도 해당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에릭슨과 '클라우드-네이티브 기반 차세대 5G 코어'를 개발해 검증 과정을 마치고 구축에 나서게 됐다.

'클라우드-네이티브 기반 차세대 5 G 코어'는 현재 글로벌 통신사들이 높 은 관심 속에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국 내에서 개발을 마치고 구축 단계에 도 달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로, SKT와 에 릭슨은 업계에 클라우드-네이티브 기 반 5G 코어 분야 표준을 제시하는 사례 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세대 5G 코어는 클라우드-네이티



SKT 구성원들이 신규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브의 장점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속한 신규 기능의 적용은 물론, 서비스 안정 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유연한 소프트웨어 이동 및 실시간 복구 기능 을 기반으로 망 오류나 장애 발생 시 빠 른 복구가 가능하다.

특히, 초고속·대용량의 5G 서비스를 위한 패킷 가속 처리, 경로 최적화, 다 중 흐름 제어 등과 관련한 최신 기술들 이 적용돼 기존의 물리 기반 대비 트래 픽 처리 효율을 최대 50%까지 향상될 전망이다

또 별도의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프라이빗-5G 같은 특화망을 보다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지적 트래픽 폭증 같은 상황에서도 클라우드 상에서의 빠른 자원 할당

으로 품질 저하 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하다.

SKT는 신규 5G 코어 장비의 경우, 차세대 5G 단독모드(SA, Option 4)도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돼 5G 단독모드 (Option 4) 도입과 동시에 고객들이 한 단계 진화된 네트워크 품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KT 박종관 인프라 기술담당은 "'클라우드-네이티브 기반 차세대 5G 코어'의 구축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롭게 개발되는 네트워크 기능들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5G 이용에 도움이 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l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포스코 친환경차 모터용 전기강판 공장 신설

1조 투입… 탄소배출 저감효과 기대 2025년까지 연간 생산능력 40만톤

포스코가 1조원을 투자해 친환경차 에 사용되는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 기강판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포스코는 지난 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친환경차 수요 대응과 시장 선점을 위해 내년부터 약 1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해 연산 30만톤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설되는 공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내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10만톤인 포스코의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능력은 2025년까지 40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포스코가생산하는무방향성전기강 판은 친환경차 구동모터 코이를 생산 하는 계열사 포스코SPS에 공급된다.

자동차시장은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올해 12%에서 2030년에는 43%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산업구조 재편 이 가속화 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H S 마킷은 따르면 올해 970만대인 친환 경차 생산은 2016년 2928만대, 2030년 4642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이 자 동차업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

매출 1조9070억, 영업익 2985억

제품 판매 단가 상승에 실적 증가

동국제강이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

출 1조9070억원, 영업이익 2985억원,

순이익 198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0% 증가했고 영업 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일 동국제강에 따르면 3분기 실적

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판매

단가 상승으로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

했다. 특히 프리미엄 컬러강판 판매 확

대 및 신규 라인(S1CCL) 조기 안정화,

극박재 등 고난도 후판 시장 개발, H형

강 신제품 상업화 등의 시장 개척 전략

로벌 철강 시황 호조에 따라 약 237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2016

248.3%, 437.0% 늘었다.

수익성 확대를 이끌었다.



수소전기차 모형에 설치된 구동모터.

어 전기차 구동계 부품 효율성에 직접 적 영향을 미치는 고효율 전기강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또 탄소배출 저감효과도 기대된다. 포스코는 공장 신설로 기존 대비 폭이 넓은 제품은 물론 두께 0.3㎜이하의 고 효율 제품과 다양한 코팅 특성을 가진 제품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수요업계 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온실가스도 연간 약 84만톤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이번 설비투자를 통해 친환경차 시대에 대폭 확대되는 전기강 판수요 및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 요구 등 자동차 산업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성운기자 ysw@

년 가동 이래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

이다. CSP는 브라질 내수판매 제한 해

지와 미국, 유럽 등 슬라브 수요처 인프

라 투자 확대에 따라 우호적인 영업환

동국제강은 4분기부터 컬러강판 사업 등 글로벌 성장 전략도 구체화 될 것

으로 전망했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

장은 지난 8일 컬러강판 관련 매출을 2 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100만t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DK 컬러 비전 2030'

동국제강은 'DK 컬러 비전 2030' 달

성을 위해 지난 9월 준공한 신규 컬러

강판 생산라인 'S1CCL'을 활용한 고

부가가치 라미나 컬러강판 시장의 확

대를 추진 중이다. 멕시코 제2 코일센

/양성운 기자

D 센터 확장 등도 착수했다.

경이 지속될 전망이다.

을 발표한 바 있다.

VR로 가상 면접관과 모의면접 본다

LGU+ 'U+VR 모의면접' 출시 가상 면접관 즉각적으로 질문 실제와 유사해 면접연습 용이

LG유플러스는 가상현실(VR) 교육 전문기업 민트팟과 함께 VR기기를 통 해 입시·취업 면접을 연습할 수 있는 'U+VR모의면접'을 정식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U+VR모의면접'은 VR 영상 속에서 면접관이 교육생의 답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관련된 질문을 함으로써 교육생이 실제와 유사한 면접을 경험할수 있는 면접 연습 서비스이다. 민트팟이 개발한 콘텐츠를 LG유플러스의 VR교육플랫폼과 통신망을 통해제공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일선 고등·대학교의 입시와 취업 분야에서 면접의 중요성 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담당 인력 부족



LG유플러스 직원이 U+VR모의면접을 통해 면접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과 서비스 예시 화면.

으로 제대로 된 면접교육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접하고, 이 서비스 를 기획했다.

'U+VR모의면접'은 면접지도가 필요한 고등·대학교, 취업교육기관에서 대면 면접교육의 높은 비용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교육 효과를 기대 할수있다.

대면 면접교육의 경우, 교육 담당자 1명이 하루 4~6명을 가르칠 수 있는 반 면, 'U+VR모의면접'을 활용하면 VR 기기 한 대만으로 하루에 20명 이상 교 육생이 면접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네이버클라우드, 중소 SW기업 수출 지원

동국제강 브라질 CSP 제철소는 글 터 진출, 충남 도성의 빌딩솔루션 R&

동국제강, 3분기 영업익 248.3% '껑충'

중기부와 수출상담회 등 개최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중소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SaaS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중소기업벤처부 와 함께 국내 중소 SaaS 기업의 글로 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출상담 회 및 API 마켓플레이스 기반 해커톤 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중기부 산하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중소 Sa aS 기업의 동남아 시장 수출 판로 개척 및 사업 확장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수출 흐름이 둔화된 악 조건속에서 중소 SaaS 기업이 온라인 기반의 해외 영업 및 마케팅 역량을 강 화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해외 인플루언서 와의 협업과 웨비나 개최 등을 통해 중 소 SaaS 기업의 홍보 마케팅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도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강준혁기자 junhyuk@

'배그: 뉴스테이트', 165개국 인기 1위

크래프톤 다운로드 2000만 돌파

크래프톤의 배틀로얄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미국, 독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각 글로벌 시장

1위를 차지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뉴스테 이트'가지난 11일 출시 후 전 세계 165 개 국가에서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기 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누적 다운로드 수도 출시 이틀만에 1000만, 4일 만에 2000만을 돌파하는 등 초반 인기몰이에 성공하면서 펍지 I P의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출시 첫 날 이후 서버가 안정화되면 서 글로벌 이용자들의 호응 또한 높아 지고 있다. /강준혁기자